

경제

■韓-EU FTA 타결 ... 지역기업 덕 보나

기아 쏘울 '수출장벽' 제거 최대 수혜

삼성광주·금호타이어도 수출 '날개' 지역 기업 안정적 판로 확보 효과도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 기아자동차, 삼성광주전자, 금호타이어 등 지역 기업의 수출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기업은 특히 세계 최대의 시장인 EU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면서 경쟁력을 키울 것으로 보여 지역 제조업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의 경우 미국, 동남아에 이어 3위의 수출 대상국이었던 EU가 최대 수출 국가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면 일반 차와의 치열한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아차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라는 보너스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EU의 관세가 3~5년 안에 철폐되면 유럽산 수입차들이 밀려 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자동차의 유럽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지난 2005~2007년 3년간 평균 자동차 수요가 1천750만대에 달하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자동차 수요로는 미국(1천680만대)보다 많다. 특히 EU는 지난해 한국 자동차 수출에서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16%를 차지, 미국 다음으로 많았다. 기아차는 슬로바키아 공장을 본격 가동하고 있는 만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기아차의 '유럽 질주'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삼성광주전자, 금호타이어도 '맑음'> 삼성광주전자에서 생산하

Table with 2 columns: 수출, 수입. Rows list various goods like vehicles, machinery, and chemicals with their respective values.

광주-EU 수출입 현황
* 광주본부세관(2009년 5월말 기준, 단위:십만달러)
현재 EU는 TV 수신용 기기 등 국내 주요 가전에 최고 14%의 고관세를 매기고 있다. 삼성광주전자 관계자는 "냉장고의 경우 1.9~2.5%, 에어컨은 2.2~2.7% 정도로 높지는 않지만 관세 철폐로 경쟁력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세가 2년 뒤 완전 철폐되고 관세 장벽이 사라지는데 따른 원재료값 인하 등을 감안하면 수출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순위 바뀌나=>을 5월까지 광주의 전체 수출액 30억1천467만 달러 가운데 EU 수출액은 3억4천360만달러로, 미국(7억9천765만달러)·동남아(5억5천456만달러)에 이어 3위다. 하지만, 한-EU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해 EU가 광주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지역기업들은 수출선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으로 예상되는 수혜를 누리려면 유럽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력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유럽 시장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수준의 제품들이 경쟁하는 곳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침통한 객장 13일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넘어서고 코스피 지수는 1,4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사진은 이날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포스코 영업이익 2분기 54% 감소

포스코가 100만 이상 판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철가 인하와 고가 원재료 탓에 영업이익이 2천억원 이하로 줄어들었다. 포스코는 13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설명회(IR)를 갖고 2분기에 단독 기준으로 매출 6조3천440억원과 영업이익 1천705억원, 순이익 4천31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포스코의 2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4.9%, 전분기 대비로도 2.0% 줄어든 것이며 영업이익은 1분기(3천730억원)보다 54.4% 감소해 2분기 만에 최악의 실적을 냈다. 그러나 시장 예상치에 들어맞는 2분기 실적을 내놓음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어닝쇼크(실적충격)' 우려를 털어냈다. 포스코는 2분기 조강 생산량과 판매량이 각각 713만2천t, 701만2천t으로 1분기보다 각각 98만7천t, 105만7천t씩 늘어나며 물량기준으로는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72억달러

6월 무역흑자 사상최고

6월 무역흑자가 72억7천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6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확정치)'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72억7천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50억6천만달러)보다 22억1천만달러 많은 것이다. 6월 무역수지 흑자폭은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1952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통상 반기 말에 기업들이 실적 달성을 위해 수출물량을 밀어내는 이른바 '반기말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Financial summary box showing KOSPI index at 1,378.12 (-50.50), KOSDAQ index at 476.05 (-10.22), and interest rate at 3.95% (+0.04).

광주 '그린 IT도시' 시동

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소 280억원 투입 광통신융합기술 기반 모델 개발 나서기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소가 전력 소비를 20%까지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세계 시장을 선점할 '그린 IT' 융합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 ETRI 호남권연구소는 13일 "세계 최고수준의 광통신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린 IT 도시 모델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위해 지난 10일 '그린 IT 광주포럼' 창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린 IT 도시 모델'이란 최소 100메가(Mbps)이상의 전송 속도를 보장하는 FTTH보다 10배 이상 빠른 기가바이트급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이를 통한 관련 서비스에 친환적인 정보통신(ICT) 기술을 융합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미래의 친환경 도시를 뜻한다. ETRI 호남권연구소는 이를 위해

4년간 모두 2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TRI는 '그린 IT 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소비 전력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가입자 수용능력 확대 및 장비 기술 전능능력을 갖춘 '저전력 PON 기술'과 '그린서비스'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 모델이 개발되면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소비되는 네트워크 전력량이 절감되는데다 시민들의 이동 횟수를 줄일 수 있어 에너지소비량 및 탄소배출량도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4년 뒤 '그린 IT 도시 모델' 실험사업'이 완료되면 교실마다 기온 메가(mega·100만)급이 아닌, 기가바

이트급 대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인프라를 구축, 3차원 영상을 빠른 시간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추진중인 U-Payment 사업과 U-컨텐츠센터 기능 및 도시 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도시통합관리체계 등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가를 위한 시간 및 비용 투자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생활 방식에도 커다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ETRI 측은 전망했다. ETRI 고재상 호남권연구소장은 "사업이 본격화되면 광통신부품 및 네트워크 장비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주의 IT인프라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그린 IT도시로서의 최적 조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점약재' 코스피 50P 급락

美 금융시장 불안 여파 ... 환율 1300원대 돌파

국내의 약재가 겹치면서 증시는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등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1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0.50포인트(3.53%) 내린 1,378.12를 기록하며 9거래일 만에 1,400선을 내렸다. 코스닥지수도 19.22포인트(3.88%)나 급락해 476.05를 기록했다. 460.83으로 마감한 4월8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하락폭 기준으로 연중 두 번째, 하락폭 기준으로 연중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도 하락폭 기준으로 연중 네 번째, 하락폭 기준으로 연중 다섯 번째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국내증시는 미국 20대 은행인 CIT 그룹이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정을 찾아가던 미 금융권의 부실 문제가 다시 부

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여기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장안에 걸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까지 겹쳐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가 사실상 타결됐다는 호재도 완전히 묻혀버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인 매수에 나서 3천782억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321억원과 1천568억원을 순매도 한데 이어 프로그램 매물로 2천290억원이 쏟아져 나와 지수하락을 부추겼다. 원·달러 환율은 추가급락에 1,300원대를 돌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2.30원 오른 1,3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증가 기준으로 1,300원대를 기록한 것은 1,340.70원으로 마감한 4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ales and leasi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unwon Real Estate, highlighting properties near Lotte Mart and Sunwon Medical Building. Includes contact numbers and office addres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hyung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lease, including a model apartment and various commercial buildings.